

“사랑이 지나가면...” (“

(요한복음 3:16, 영적핵심가치 연속설교 4: 선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설립 67 주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와싱턴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순수함,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루터는 ‘작은 복음서’ ‘복음의 축약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만약 불과 몇 분 밖에 살 수 없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요삼일육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삼일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을 좀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를 빼놓고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설명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혼자 못하는 것이 연애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마음 속 깊이 품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적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격조건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형상이 뒤틀어져 왜곡돼 있는 사람, 아예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태양빛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과 일자무식인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듯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과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위대한 희생의 역사입니다. 사랑해보신 분들은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거절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거절 당하고, 무시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품으시려고 마냥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단 하나 오직 구원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함이나 봉사, 더군다나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인류전체를 향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로만 끝나면 안됩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진한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왜 선교를 주제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누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주님의 제자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될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선교팀이 달동네를 찾아 갔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하나 밖에 마을 공동화장실 앞에 선교팀이 긴 줄을 섰습니다. 빨리 볼 일을 마치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터라 인솔자 목사님이 노크를 하고 “빨리 좀 나오세요. 줄이 길니다” 재촉을 합니다. 안에서 장로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목사님이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거듭 재촉합니다. “목사님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 장로님이 화장실을 나오는데 장로님 모습에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은 깜짝 놀랍니다. 한 눈에 장로님이 화장실에 뭐하다 나왔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힌 변기를 뚫으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장로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 퍼주는 사역 갔다가 오물을 퍼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밥을 퍼주는 것은 목표이고, 진정한 목적은 사랑을 퍼주는 것이지요. 장로님은 오물이 아니라 사실 사랑을 퍼준 것입니다.

근대철학의 대명제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현대인은 ‘바쁘다 고로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한다 고로 숨쉬고 있다. 선교한다 고로 사랑하고 있다.’ 선교는 선택을 요구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살아 숨쉬는 크리스찬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밖을 나설 때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축복해 드립니다.

[속회자료]

찬 송	210 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기 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요한복음 3:16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10 분)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요약(15 분)	kumc.org 웹사이트 [속회자료실]에 있는 설교 요약을 읽습니다.
말씀나눔(90 분)	1) 살아 오시면서 느꼈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4)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은 어디 입니까?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516 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기도문	